"책 만드는 법 가르치면 저절로 책을 좋아하게 됩니다"

영화감독이나 디자이너가 되는 청소년들이 늘어간다. 이는 어린 친구들이 관객과 소비자 입장에서 벗어나 생산자가 되어 창조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작업이 어린이책 분야에서도 시도되고 있다. 영국 폴 존슨 교수의 '북아트 프로젝트'를 차용해 책만들기를 가르치는 '책만들며 크는 학교'(대표 권성자)가 그 대표적인 장소다.

책 만드는 과정을 통해 책의 소중함을 배운다.

"2001년 여름에 시작했죠. 어린이책을 기획하면서 아이들의 표현력에 관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실제로 책 한 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려주고, 자신의 생각을 책 속에 담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독일도서전에서 메이킹 북을 보게 되었는데 그걸 자료 삼아 우리 아이들에게도 책 제작 과정을 소개했더니 반응이 좋더군요."

'책만들며 크는 학교'의 대표 권성자 씨는 이 학교에 아이들의 상상력을 불러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말한다. 미술 시간에 배우는 생일카드, 크리스마스 카드 만드는 법뿐 아니라 한 권의 책을 만드는 과정까지 모두 배울 수 있기에 아이들은 이 작업에 호기심을 갖는다. 학교에서는 팝업 카드와 팝업책을 만들면서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를 구성하기도 하고, 기본적인 책을 완성하고 응용이 가능해지면 정보가 담긴 실용서까지 제작하는 실습을 하기도 한다. 체계적인 단계의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책을 읽는 것과는 다른 다각도의 교육 효과를 얻어갈 수 있다는 것이 책만들기 교육의 장점. 여기에 언어 사용력이 증가된다는 장점도 빼놓을 수 없다.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과 실제 정보들을 책 속에 반영하면서 주제를 표현하고 개인이 원하는 책을 자유롭게 창조하는 방법을 배워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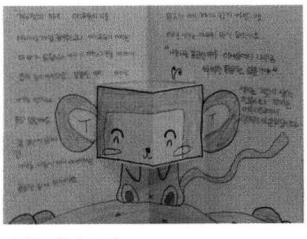
기획회의를 마치고 책을 만들어보는 아이들.

"독서지도사나 유치원교사 등 이 일을 직접 가르치려는 분들이 배워가기도 하죠. 아이들에게 실제 체험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은 일인데 앞으로 이 분야가 전문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봅니다."

30평 넓이의 학교에서는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진행된다. 현재는 교구, 교재 연구 제작 및 어린이들을 교육하려는 성인들을 위한 성인 커리큘럼도 마련되어 있다.

"아이에게 어른만의 생각을 강요하기보다는 아이들 스스로 읽고 싶어하는 책, 만들고 싶어하는 책을 만들도록 해 준다는 방향을 설정, 이 일을 계속해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면서 불필요하게 아이들을 간섭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선생님들의 지도를 통해 아이디어 기획, 자료 수집, 정리 및 그림 배치까지 마친 아이들. 그러나 이것으로 책 만들기 교육이 끝난 것은 아니다. 어린이 기획자, 생산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출판기념회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 시간을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칭찬과 충고를 아끼지 않는 어른들의 아량도 필요하다.


아이들이 만든 책.

"아이들은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혹은 학교 발표자리에서 자신이 만든 책을 칭찬하고 책에 대해 얘기해주는 것을 가장 좋아하죠."

단순한 '읽기'보다는 '만들면서 읽기, 표현하기' 등을 가르치는 학교. '책만들며 크는 학교'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라'고 강요하기보다는 책이 완성되는 과정을 실제적으로 만나게 하는 방향 조성을 한다는 데서 어른들이 해야 할 진정한 숙제를 제시한다.

취재 김청연 기자